



휴롬

“원액기 노하우 담은 ‘휴롬주스’ 만나세요”

첨가물 없는 100% 과일·야채

원액기 제조사로 잘 알려진 휴롬이 1인 가구 시장 등을 겨냥해 주스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휴롬이 자사의 원액기로 착즙해 판매를 시작한 ‘휴롬주스’ (사진)는 특히 물이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과일과 야채로만 만든다.

휴롬은 휴롬주스를 론칭하고 공식소핑몰인 휴롬샵을 비롯해 랭킹닷컴, 락식 등 온라인몰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류는 케일, 시금치, 당근, 비트,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등 다양한 채소 과일을 배합해 만든 5종의 착즙주스와 2종의 기능성 주스를 포함해 총 7종으로 구성됐다. 휴롬은 바로 짜서 마시는 주스와 동일한 맛과 영양소 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바이오식품연구소가 제품 연구·개발에만 1년 이상을 준비했다.

휴롬이 2016년 당시 개발한 숙취해독 주스와 다이어트용 주스는 모두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정평이 나 있다. 이같은 노하우를 살려 최대 1개월까지 유통, 보관할 수 있는 주스를 개발한 것이다. 다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조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음용하는 것이 좋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휴롬주스는 제품화를 위해 저속으로 지그시 눌러 짠 핸드메이드 주스를 대량으로 패키징하는 자동화공정도 도입했다.

당장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등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미국 시카고·싱가포르에 中 中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중앙회가 싱가포르와 미국 시카고에 각각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싱가포르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경제사절단이 12일 ‘싱가포르제조업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남방 진출 지원데스크’ 설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을 회원으로 둔 싱가포르제조업연합은 2014년부터 중기중앙회와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신남방 진출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글라스푸싱가포르제조업연합회장은 “싱가포르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희망한다면 연합회 본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6개월 정도 무상 지원할 수도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국내 최고 수준 감염관리 시스템 ‘환골탈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개편

병상 절반으로 줄이고 면적 넓혀 1인 격리실로 원내감염 원천 차단 간호사·약사 증원에 의료질 향상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을 1등급(간호사당 병상수 0.5개 미만) 수준으로 늘리고 22병상을 11개의 1인 격리실로 바꾼다. 또 입원한 미숙아들에게 주사하는 완전정맥영양제(TPN) 조제실을 무균실로 운영하고 주말에도 ‘TPN 당일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 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22억 원을 투자해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환경과 약제과의 TPN 조제 시설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공사에 돌입하고 인력 보강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 혁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 후 폐쇄됐던 신생아중환자실과 관련 시설 및 인력, 프로세스를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전면적인 개선 공사에 들어가 8월말 완료 예정인 신생아중환자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희의료원

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기존 22병상에서 11병상으로 병상 수를 대폭 축소해 병상당 면적을 2배 이상 늘렸고 전 병상을 음압격리 2실과 양압격리 1실을 포함한 1인 격리실로 설계해 원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진료 프로세스에서도 감염병의 의심되는 신생아는 입구에서부터 음압 격리실을 경유하도록 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젓병 세척, 소독, 조유 등의 간호 활동 또한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해 단계를별로 감염을 차단하고, 오물처리 및 세척과 소독 또한 한 방향의 동선으로 구성해 감염을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인력 또한 강화된 인력 기준에 맞춰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인 간호사당 병상 수 0.5 미만 기준을 충족하도록 간호 인력을 23명(간호사당 병상 수 0.48)으로 증원하고 향후 병상 가동률 추이를 감안해 최대 26명(간호사당 병상 수 0.43)까지 늘릴 예정이다.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여 담당 환아에게만 집중, 최고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약국 내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완전정맥영양)실도 전면 개선해 조제 단계에서부터 약 불출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TPN실은 항암주사 제조실과 같은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병원 내 중앙 배기구와 독립된 배기 장치를 가진 무균조제대 2대를 신규 설치하고, 헤파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를 설치한 무균실로 운영한다. 또한 조제된 TPN은 패스박스(Pass Box)를 통해 전달되며, 준비실로 통하는 입구에는 에어샤워(Air shower)기도 설치해 감염원이 TPN조제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대비한다.

이와 함께 약사 인력을 6명 증원해 주말에도 평일과 같이 TPN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병원 이희의료원장은 “지난 해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태와 관련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및 TPN조제실 전면 개선 공사는 물론 간호사 및 약사 인력도 대폭 늘리는 등 전반적인 진료 환경과 진료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한 병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왼쪽부터)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실버택배’ UN서 인정

‘UN SDGs 기업이행상’ 수상 공유가치창출 충실 이행 인정



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UN SDGs 기업 이행상을 수여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는 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는 CSV(공유가치창출)에 충실했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고품화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문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실버택배’는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어르신들이 친환경 전동 카드 또는 손수레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모델이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회사의 배송 서비스를 높여 기업과 사회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CJ그룹의 대표적 CSV 모델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니셔티브(SDGs)’에 우수 사례로 ‘SMART 인증’을 받아 UN 공식홈페이지에 등재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함께 쓰는 오피스’ 서브윈 “강남 사무실 무료로 쓰세요”

‘플래그윈 강남캠프’ 오픈 이벤트 4개월 이상 계약시 추가 2개월 덤



플래그윈 서브윈 강남빌딩 전경

공유오피스사업에 뛰어들어 서브윈이 8월초 본격 오픈을 앞두고 또 다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브윈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 준비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플래그윈 강남캠프’가 13일부터 50석에 한해 ‘4+2 사전예약 이벤트’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4개월 이상 계약 시 추가 2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플래그윈 13층 메인라운지 전경.

서브윈은 관련 사업 진출을 알리면서 지난 6월에도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플래그윈 강남캠프는 앞서 사전 이벤트를 한 지 1주일만에 선착순 50석이 조기 예약이 끝난 바 있다.

플래그윈 황준오 상무는 “플래그윈은 8월 오픈 이후에 입주자들의 워라벨(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을 실현하고 비즈니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브윈은 또 플래그윈을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1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약 2주간 플래그윈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 가운데 2팀을 뽑아 월 200만원 상당의 3인실 프라이빗 데스크를 각각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오픈을 한 달 앞둔 플래그윈은 입주자들의 성공 비즈니스를 돕는

신개념 공유 오피스로 교통의 요지인 양재역 2분거리에 있는 서브윈 강남빌딩 3개층에 600석 규모로 마련중이다. 플래그윈은 입주기업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업무공간을 조성해 1~2인 스타트업부터 200인 이상의 기업까지 폭넓게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업계 최대 크기의 사무용 데스크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로 적용된 13개 회의실, 층별 라운지, 명상공간 케이트룸과 LP음악감상공간 하이브룸 등 다채로운 테마의 휴게 공간도 운영한다. 특히 업계에서 유일한 250석 규모 대형 강당과 세미나룸을 갖춰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도 큰 비용부담 없이 쇼케이스,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